

지역 소식통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실시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1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펼치며,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먼저, 이도형 의원은 시장질문을 통해 △읍면동의 경계 조정 추진 및 하부조직 운영 기준 △시립어린이집 운영 문제점, 어린이집 감소 대처 방안 △신속한 제설작업 방안 △유기견센터 운영 실태와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관광 인프라 조성 및 관광기념품 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한선미 의원은 △부서별 청년정책 및 지원 사업과 홍보 현황 △다양한 청년정책과 지원 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창구 단일화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의 창구 단일화 등에 대해 질문했다. 서광영 의원은 △수익계약 총량제의 도입에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5곳 선정

고창군이 전년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을 크게 줄인 지역 내 공동주택 5곳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평가 결과 '우수 공동주택'에는 아르데아파트, 성산현대아파트, 장산빌라, 우일아파트, 미영아파트 5곳이 선정됐다.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공동주택별로 최대 20만원 상당의 물품이 제공된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인센티브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감량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감량실적이 우수한 곳에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작년 대비 배출량을 분석하여 감량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목재문화체험장 박차

임산물체험단지·내장산문화광장 연계 체험관광 명소 기대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에 조성 중인 목재문화체험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장(연면적 788.42㎡)은 부전동 산338-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2억원(도비 42억)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읍 임산물체험단지 목재문화체험장 조감도. <사진=정읍시청 제공>

도입 시설은 목공체험실, 목재전시실 등으로, 초급부터 고급과정에 이르는 다양한 목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1년 기본·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이듬해 11월 공사를 착공해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서면 임산물체험단지에는 차향문화관, 차향다원, 임산물 향기온실 등이 조성돼 있다.

또한 내장산문화광장과 국민여가캠핑장, 천사하이로드 등이 인접해 있어 체험 관광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되면 임산물체험단지 등 주변과 연계한 연령별 맞춤형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목재 문화·교육 체험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명소화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2명, 모범 의정활동 공로 인정받아

박태수 의원, 행복나눔 봉사대상 이학수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11일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모범적인 의정 활동 공로를 인정받은 의원에게 대한 상패 및 상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안군의회 박태수 의원과 이학수 의원이 활발한 의정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행복 나눔 봉사대상'과 '지방의정 봉사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먼저 박태수 의원은 사회 각 분야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공헌해 온 부문별 인물들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는 '제10회 대한민국 행복 나눔 봉사대상' 주민행복지수 공헌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의 영광을 안은 박태수



박태수 의원 이학수 의원

의원은 "영광스러운 수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해결책 마련에 힘쓰며,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부안군의회 이학수 의원이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지방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시군의회 의정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학수 의원은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최선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최근 제3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태수 의원은 '부안군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5분 발언, 이학수 의원은 '논 공 전량 수매 등 지원 대책'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상패 및 상장을 전수한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장은 "이번 부안군의회 의원들의 수상은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2024년에도 의원님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군민을 위해 노력하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민관 사례관리 연계 강화간담회 개최

정읍시는 11일 민관 사례관리 연계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담당자를 비롯해 지역 내 기관·단체 담당자, 사례관리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문성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통합사례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고독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할 수 있는 사례관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민·관 실무자들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례관리를 공유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주택 피해 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하는 주택피해 위험수목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군, 위험수목 사전 제거

군민 생활 불편 해소, 주택피해 우려 위험나무 210여주 정비 완료

고창군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주택 피해 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하는 주택피해 위험수목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 피해 위험수목이란 집중 호우나 강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를 사전에 제거해 군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창군에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00여주의 위험수목을 정비했다. 올해는 사업비 6800만원을 투입해 총 51개소 160여주의 위험수목을 정비했다.

또 호우피해 응급 복구사업을 통해 총 13개소 50여주의 위험수목을 추가

정비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이번 주택피해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조사 후 위험순위, 수목 소유자의 동의여부, 정비 진입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고창군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2024년 주택피해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위험수목이 오랜기간 방치되어 강풍, 폭우 시 도복우려가 있어 제거가 시급하고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장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지역 청년 인재 공직·공기업 진출 지원

26일까지 모집

정읍시가 지역 청년 인재들의 공직과 공기업 진출을 돕는다.

시는 청년이 정읍에 정착해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은 청년들이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 준비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탈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예방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년도 청년취업시험 준비반(공무원 및 공기업NCS)에 참여할 수강생 120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정읍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그 시민의 배우자 및 자녀로, 18세부터 45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단, 접수일 기준 응시자 본인이 정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접수 희망자는 평생학습관 3층 사무실에 관련 서류 등을 갖춰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번 시험준비반의 운영 과정은 공무원 직강 60명, 공무원 동영상 강의 40명, NCS 동영상 20명 등으로 내년 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44주간 진행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교재비 별도)다.

시는 오는 30일 모집희망자를 대상으로 과목별 레벨테스트를 거쳐 성적별로 반 편성을 해 효율적인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는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운영 6개월만에 전북 지방공무원 시험에 4명이 합격하고, 지난 11월에는 금융원(NCS반)에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